

2019 Fall Vol.4

인천 119스토리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뉴스

모델이 된 소방대원들,
2020년을 밝힐
몸짱 소방관 캘린더

똑똑똑

특수재난을 해결하는
베테랑 소방대원들,
인천119특수구조단

미디어체크

영화 <새드무비>를 보고
대원분들께 물어요



Contents

2019 FALL Vol.4



발행인 인천소방본부장 김영중
발행일 2019년 10월 14일
발행처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190
전화 032) 870-3075
홈페이지 <http://new119.incheon.go.kr/>
ISSN 2671-5333
기획편집 김성남, 이경철, 강성은, 변태우
번역검수 최병기

디자인·기획·편집 (주)착한넷
070-7092-0999 <https://chakan.net>

- 04 안전뉴스
모델이 된 소방대원들, 2020년을 밝힐 몸짱 소방관 캘린더
'시민과 함께하는 동물농장'으로 오세요
따뜻한 방문, 호미 마을 안전지킴이 봉사활동
대형화재 막은 슈퍼맨 버스기사
- 10 똑똑똑
특수재난을 해결하는 베테랑 소방대원들, 인천119특수구조단
- 16 미추홀스토리
내 인생의 2막을 시작하며
전국소방자랑!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
- 20 미추홀포커스
웃음을 주는 신통방통 소방관 매지선! 박성욱의 마술 세상
- 24 그날을 기억하며
패딩 입고 출동, "화염을 보는 순간 그냥 몸이 움직였습니다"
- 26 에너지충전소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유쾌한 소방 식구!
- 30 생활 속 소방
가을철 산악사고, 기본수칙 지켜 다 함께 안전산행해요
- 32 어린이119
'See&draw 어린이 소방안전도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 34 미디어체크
영화 <새드무비>를 보고 대원분들께 물어요
- 36 렛츠소방
저희를 만나면 양보해주세요~!
- 38 시민이야기
든든한 지원군단, 나는 시민 의용소방대원입니다
- 40 함께하는 소방
2019 하반기 소방 행사 안내
- 41 칭찬합시다
- 42 안전카툰
- 43 에필로그

인천소방의 하루

A Day of Incheon Fire Department

화재진압
4.5건

인명구조
55건

응급이송
275건

의료상담
144건



1일 총 478건 → 3분 마다 1건 처리

5시간 마다
1건 처리

26분 마다
1건 처리

5분 마다
1건 처리

10분 마다
1건 처리



화재진압 전년대비 : 화재 6% ↓ , 인명 21.6% ↓ , 재산 47.1% ↓
 화재발생 : 944건 (1,004건)
 인명피해 : 58명 <사망 8명, 부상 50명> (74명)
 재산피해 : 15,489백만원
 [부동산 8,066백만원, 동산 7,423백만원] (29,253백만원)



구조활동 전년대비 : 구조건수 13.3% ↓ , 구조인원 23.3% ↓
 구조건수 : 11,552건 (13,327건)
 구조인원 : 3,227명 (4,206명)



응급이송 전년대비 : 이송건수 0.4% ↓ , 이송인원 0.8% ↓
 이송건수 : 58,222건 (58,435건)
 이송인원 : 59,064명 (59,547명)



의료상담 전년대비 : 상담건수 11.3% ↓
 상담건수 : 30,568건 (34,453건)

*기간 : 2019.01.01~07.31

*() - 2018년 실적

모델이 된 소방대원들, 2020년을 밝힐 몸짱 소방관 캘린더

Firefighters who became models for the
2020 muscle-bound firefighters calendar

인터뷰이_미추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사 박도영, 부평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최정호,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교 이제민

출근 전 새벽 운동, 퇴근 후 저녁 운동을 장장 2개월이 넘도록 지속한 남자들이 있다. 웬만한 의지로는 힘든 일정을 군말 없이 소화해 낸 열여섯 명의 장정들이 드디어 스튜디오로 들어섰다. 근육질 소방관의 화보가 담긴 달력 판매 수익금을 순직, 공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몸짱소방관 캘린더> 제작을 위한 촬영이었다. 이 멋진 프로젝트에 참여한 소방관 셋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인천광역시 몸짱 소방관 캘린더> 제작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박도영 안녕하세요, 저는 미추홀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박도영입니다. ‘몸짱 소방관 캘린더’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는 걸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참여했습니다.

최정호 저는 부평소방서 소방장 최정호라고 합니다. ‘순직 및 공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마음에 들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민 반갑습니다, 계양소방서 소방교 이제민입니다. 저는 최근 건강 관리에 소홀해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때마침 소식을 듣고 마흔이 되기 전 대한민국 소방관으로서 건강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다잡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달력 사진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던 편이신가요?

박도영 평소에도 운동을 하는 편이지만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는 특히 더 열심히 했어요. 하루를 출근 전 새벽 운동으로 시작했고 퇴근 후 저녁 운동으로 마무리하며 주 6회 이상 트레이닝했죠. 당시 인바디 측정결과 체지방률 3%였습니다. 지금은 좀 줄어서 주 3회 이상 운동하고 체지방률 8%입니다. 좀 올랐죠(웃음).

최정호 저도 화재 및 구조현장에서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으려고 평상시에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편입니다. 열심히 운동한 결과 촬영 당시 67kg이었는데 지금은 살짝 무거워졌죠(웃음).

이제민 운동을 좋아해서 주 3회 이상 운동을 하지만 가족, 친구들과 술자리가 잦아 이번 프로젝트 같은 목표가 없었다면 몸 관리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왼쪽부터 최정호, 박도영, 이제민





Q. 달력 사진 촬영 중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박도영 촬영 당일 보디빌딩 탄(몸을 까맣게 만드는 크림)을 바르는 작업을 마치고 스튜디오로 이동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몸이 훌쩍 젖어 탄이 지워지고 군데군데 시꺼멓게 얼룩져 난처했습니다. 다행히 스튜디오에서 다시 탄을 바르고 무사히 촬영했네요.


최정호 저는 촬영 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난 후 요요현상이 왔어요. 참아왔던 식욕이 폭발해서 제가 먹고 싶던 음식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촬영이 끝나는 시점부터 1시간 간격으로 먹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단시간에 섭취하니 두 달 동안 만든 몸이 순식간에 전처럼 돌아가는데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복근을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이제민 87kg 몸무게로 시작해 68kg까지 감량했는데 제가 너무 무리했던 건지 촬영 날 몸 상태가 안 좋았지만 동료들과 함께라 정말 즐거웠습니다. 프로젝트를 마친 후엔 그간 다이어트로 못 먹었던 음식을 쉬지 않고 먹었어요. 3일 만에 78kg으로 돌아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도 놀랐고요(웃음).

Q. 캘린더 판매 수익금 전액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으로 기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박도영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촬영을 준비하면서 운동 지식이 한층 더 깊어지고 기부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 계기로 꾸준히 몸 건강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준비했던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최정호 ‘몸짱소방관’이라는 칭호가 저에게 그다지 어울리진 않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마무리되어 정말 기쁩니다. 운동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희망적 에너지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민 운동을 하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으로 소방 일에 임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소방관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면 모두 다 옷을 벗어 던지고 어디든 뛰어들 것입니다. 이번 촬영엔 열여섯 명의 소방대원이 참여했지만 함께 하지 못한 인천소방 직원분들 모두가 몸짱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동물농장으로 오세요

Come to the “Citizens’ Animal Farm.”

화색빛 메마른 도시의 아스팔트 위에 푸른 화단이 꾸며지고 원목으로 만든 이층집에는 토실토실 귀여운 토끼들과 조그마한 기니피그가 뛰어논다. 거리를 오가던 행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개를 돌려 생긋 웃음을 짓고 대부분은 우리로 다가와 탄성을 지르며 ‘귀엽다, 예쁘다.’ 감탄을 연발한다.

글_공단소방서 동춘119안전센터 소방장 김대현



2018년 4월부터 공단소방서(서장:추현만)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동춘119안전센터 “시민과 함께하는 동물농장”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며 인근 주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센터장 민병복 소방경의 적극적인 의지와 직원들의 협조로 조성된 동물농장은 센터 뒤편 주차장의 한 귀퉁이에 만들어졌다. 동춘119 안전센터 직원들이 두어 평 남짓한 공간을 활용해 텃밭을 만들고 포도나무와 백일홍, 산국, 안개초 등 12종의 씨를 뿌려 가꾸고 있다.

원목을 깎아 만든 2층의 동물 우리는 한눈에 보아도 범상찮은 솜씨임을 알 수 있는데, 정학문 소방교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졌다. 평소 목공예 취미가 있던 그는 민병복 센터장의 제의에 흔쾌히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일주일 만에 네 마리의 토끼와 세 마리의 기니피그를 위한 보금자리를 완성했다. 1층 왼쪽에 외부와 차단된 아늑한 침실을 만들고 우리 중앙에는 살아있는 철쭉나무가 바닥을 뚫고 올라가게 하여 자연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으며, 전면의 경사형 계단을 올라가면 2층에 응접실이 있다. 7마리의 동물들은 1층에서 식

사를 한 후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동을 하다가 시민들이 찾아오면 2층 응접실에서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재롱을 부린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관람객이 동물농장을 방문하는데, 관내에 학교와 병원이 많아 등하굣길의 학생들과 산책하던 시민들이 주로 찾아온다. 아침마다 동물들을 위한 도시락을 싸오는 학생도 있고, 환자복을 입고 어려운 걸음을 옮겨 농장 앞에 서서 무언의 대화로 긴 시간을 보내는 이도 있다. 무엇보다 왕복 4차선 도로가 엇갈리는 사거리 모퉁이, 자동차 소리와 매연만 가득했던 공간에 자연과 생명이 찾아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작 두어 평 남짓한 조그마한 공간의 동물 몇 마리가 메마른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잠깐의 휴식과 함께 생동감을 선사한다. 농장을 관리하는 동춘119 안전센터 직원들도 농장을 구경하는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동물구조, 소방과 시민 안전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먹이를 주는 시간에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들어 서로 먹이를 주겠다고 경쟁을 한다. 토끼를 안고 싶다는 유치원생에게는 직원의 도움으로 체험 행사를 할 때도 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치열한 현장에서 고통스러운 구조대상자 혹은 환자로만 마주했던 시민들에 대한 소방관들의 인식 전환도 일어나고 있다. 또한, 막연한 영웅으로 소방관을 그리던 아이들도 귀여운 토끼와 함께하는 소방관 아저씨를 보며 좀 더 친근하고 실제적인 존재로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한다.

센터 동물농장의 인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고 있고, 호응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과 소방관 사이 소통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다만, 시민들의 관심이 너무 커지면서 부작용도 생겨났다. 며칠 전 야간에는 거하게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시민이 행패를 부려 한 마리의 기니피그가 사망하는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다. 과자를 나눠주려는 어린아이들과 직원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도 다반사다. 동물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듯 우리 시민들 역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좀더 생명을 소중히 여겼으면 한다.



동춘119안전센터장(소방경 민병복) “앞으로 텃밭 가꾸기와 화단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토끼와 기니피그를 통해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시민들이 동물과 꽃을 통해 잠시나마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119의 목적이 동물농장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소년에게서 피어난 것처럼 순수한 웃음을 지은 초로의 소방관은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증명하는 듯했다. 

따뜻한 방문, 호미 마을 안전지킴이 봉사활동

A warm visit to the Homi Village for volunteer services as safety guards

글_김지현



8월 5일 낮, 학익동 호미 마을에 주택용 소방시설과 행복 상자가 배달됐다.


쪽방촌 주민들은 문을 두드린 시민 봉사자들과 소방대원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연신 감사함을 표했다. 인천소방과 시민 봉사단원들이 함께 추진한 ‘화재취약계층 안전지킴이’ 활동의 일환이었다.

쪽방촌에 불이 나면 재산피해보다 인명피해가 크다.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연소 확대의 위험도 있고 대피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설이 많아서다. 더군다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신속히 대피하기 힘들어 화재에 취약하다. 이에 인천소방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쪽방촌 화재 취약가구에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분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구급 용품과 쌀, 라면, 생수 등을 담은 행복 상자를 전달했다.

“화재 초기의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

먹는 위력을 가진다는 말이 있어요. 저희가 주택용 소화기를 전달하면서 사용법을 알려드렸으니 어르신들께서 앞으로 더 안전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소감을 전한 소방대원은 덧붙이는 말로, ‘특히 시민 봉사단원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보람차고 뜻깊었다’며 대학생 봉사단원들을 칭찬했다.

이번 안전지킴이 활동을 기획한 대학생 봉사단원들도 ‘오늘 진행한 안전지킴이 활동이 소방본부에서 원래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일인지 몰랐다’며 보다 많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경을 쓰고 있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더운 여름날 진행된 일정이었음에도 밝은 얼굴로 쪽방촌 문을 두드린 인천소방과 시민봉사자들의 걸음이 반갑다. 이날 호미 마을 이웃들에게 배달된 따뜻한 나눔이 모두의 안전이 되어 돌아오길 바란다. 

대형화재 막은 슈퍼맨 버스 기사

A superman bus driver
who prevented a big fire

글_인천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조인자




2019년 6월, 인천에 슈퍼맨 버스 기사가 등장했다.

4일 오전 인천 남동구 운연동 인근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운전기사 강성천(30세, 남) 씨는 인근 야산에 불이 난 것을 목격했다. 그대로 두면 이후 큰불이 될 거라 짐작해 곧바로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한 후, 차량 내 소화기를 들고 와 진화 작업을 시작했다. 강 씨는 소화기 하나로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자 다시 차로 돌아와 운전석 쪽 소화기까지 동원했다.

용감한 버스 기사의 노력으로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큰불이 모두 잡힌 상태였으며, 다행히 성공적인 초기 진화로 피해 면적도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속한 대처로 이번 화재가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아준 버스 운전기사 강성천 씨에게 남동소방서에서는 특별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남동소방서장은 특별히 인천 소방을 대표해 “용

기 있는 행동으로 큰 피해를 예방했다”며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후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종료되고 티타임 시간에 강 씨는 “사실 소방관을 꿈꾸며 운수회사에서 운전경력을 6개월째 쌓고 있는 중”이라며 뜻밖의 목표를 밝혀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는 이른 시일 내에 꼭 소방 가족으로 다시 만날 새로운 인연을 약속하며 버스회사로 돌아갔다. 

“슈퍼맨 버스 기사님,
동료 소방관으로 꼭 만나요~!”



특수재난을
해결하는
베테랑 소방대원들

인천119 특수구조단!

Veteran firefighters against special disasters, the Incheon 119 Special Rescue Team



대테러, 대형자연재난, 방사선 유출 등의 화생방사고.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사고보단 재난에 가까운 현장을 기꺼이 다루는 이들이 있다. 바로 인천소방본부의 베테랑들이 한데 모인 119특수구조단(이하 특구단)이다. 특구단은 재난현장에 출동해 구조활동을 펼치는 '긴급기동대'와 '소방항공대', 그들을 뒷받침하며 대테러 행사안전을 담당하는 '운영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特殊)재난에 대비하는 특수(特秀)한 소방대원들! 가을호 소식지에는 특구단 각 팀의 중요 일원들을 만나보았다.

글_김지현 사진_김현미, 인천소방본부

인터뷰이_인천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긴급기동대 소방교 엄민규, 인천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소방위 김영주, 인천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운영지원팀 소방장 박성원

현장을 책임지는 특구단의 행동대장! 긴급기동대

인터뷰이 : 인천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긴급기동대 소방교 엄민규



Q. 안녕하세요, 엄민규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천119 특수구조단 긴급기동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엄민규라고 합니다.

Q. 특수구조단의 긴급기동대는 어떤 일을 하나요?

저희는 백 프로 ‘현장부서’예요. 행정적인 업무도 하지만 그보단 현장에 나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긴급기동대는 일선 구조대가 하는 업무 이외에 더 전문적인 장비나 인력이 필요한 화재·수난·산악·화생방·대테러 등의 현장에 나가서 초동대처를 하고 사후처리를 해요. 보트도 있고 제트스키도 가지고 있어서 거의 모든 출동을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웃음). 또한, 매주 특수 장비에 대한 교육 훈련을 하고 대외적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 근접 배치에 동원됩니다.

Q. 전문장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차량만 해도 목적에 맞게 여러 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구조차, 구난차, 생화학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화학차는 특수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생화학 장비, 측정 장비, 방사선 구역 출입 시 입는 보호복 등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구조차와 구난차 안에도 산악, 수난 장비가 있어서 그 어떤 사고가 나도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답니다.

Q. 미래의 ‘특구단 긴급기동대 대원’이 되고 싶은 이에게 ‘긴급기동대’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세 1~3가지를 꼽아 알려준다면?

첫째는 ‘본인 몸을 스스로 보호할 줄 아는 것’. 소방대원이 다치지 않아야 앞으로도 저희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께 갈 수 있으니 나와 내 팀원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둘째는 ‘자만하지 않는 겸손함’입니다. 어르신들이 공부에는 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구단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신제품이 나오거든요? 늘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 요구조자분들을 도울 수 없어요. 자만해서 ‘난 충분히 잘 알고 있어.’ 하고 풀어져 있다면 소방대원이 역으로 요구조자가 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은 ‘팀원을 소중히 여기고 팀워크를 중시하는 자세’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개인이 그 험난한 현장에서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할 순 없거든요. 서로 돕고 서로 보호해야 해요.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긴급기동대에서 지금까지 6년 정도 있었는데, 여긴 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교육 받을 기회도 많고 큰 현장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소방관들에겐 두렵지만 값진 경험이거든요.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치다 보면 힘들었던 만큼 반드시 무언가 하나를 배워서 돌아와요.

앞으로도 특수구조단으로서 오래오래 저희 팀원분들이랑 즐겁게 지내고 싶어요. 다들 안 다치고 건강하게 특수구조단 긴급기동대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 최고거든요~!

똑똑똑

—— 특수재난을 해결하는 베테랑 소방대원들, 인천119특수구조단

산 넘고 바다 건너 조난자에게로!
하늘을 누비는

소방항공대

인터뷰이 : 인천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소방경 김영주

Q. 안녕하세요, 김영주님.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소방본부 소방헬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주 팀장입니다. 저는 육군에서 조종사로 23년을 근무한 후 인천시민의 ‘안전 지킴이’라는 꿈을 안고 전역해 이곳 소방항공대에 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119특수구조단의 소방항공대는 어떤 부서인가요?

소방항공대는 차도 배도 닿을 수 없는 곳에 헬리콥터를 타고 출동해 구조활동을 펼치는 팀입니다. 소방헬기 하나에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이 한팀이 되어 주·야간 사고 현장으로 날아가죠(웃음). 산악 및 바다, 강에서의 조난자 구조·이송은 당연하고 산불진화 및 건물의 화재진압 등 다양한 소방업무를 지원하고 있어요.

Q. 주변에 소방관이 아닌 분들께 소방항공대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멋진 직업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가파른 절벽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야간에 백령도까지 머나먼 바다를 건너 환자를 이송하는 등의 어려운 임무를 한다며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응원해주는 목소리가 들릴 때 정말 뿌듯합니다.

Q. 타 소방서와 다른 장비들이 있나요?

저희가 가진 대부분의 장비는 소방헬기와 연계하여 운용됩니다. 산악 구조 시 주요 장비로는 심정지 환자를 인양할 때 흉부 압박을 할 수 있는 기계식 가슴 압박장치를 꼽을 수 있겠네요. 또, 항공구조용 들것과 요구조자 안전벨트, 헬기에 탑승한 의사가 즉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수약품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방항공대의 헬기 하단에는 물탱크와 밤비 버킷(산불 진화용 물을 담은 바구니)등의 특수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어 화재 진화 시에도 유용하답니다.

Q. 출동 지령이 내려지면 보통 신고 접수 후 출동까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지령 접수와 동시에 분야별 임무수행이 즉각적으

로 진행됩니다. 조종사는 운항 항로의 기상 및 장애물 등 비행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인천 공항 비행정보실에 비행계획을 제출합니다. 구급대원은 자세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심장 제세동기 등의 적절한 구급 장비를, 구조대원은 상황에 맞는 구조 방법을 판단하고 구조 장비를 챙깁니다. 정비사는 항공기 상태를 재점검하고 시동에 필요한 장비와 연료 보급계획 등을 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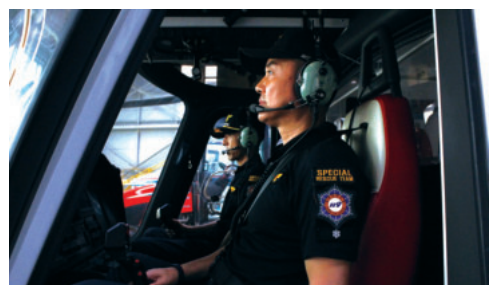
Q. 항공기를 신속히 운항, 위험한 신고 지점에 도착해 사고 상황을 해결하실 때까지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김영주 소방경님만의 긴장을 푸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평소 충분한 훈련으로 임무수행절차를 완전하게 숙달하고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미리 단련해 둔 신체적 정신적 근력들이 이후에 꼭 필요한 자신감이 되거든요.

또, 임무수행 시에는 상황실과의 무전교신과 동료들과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긴장을 풀어요.

Q. 마지막으로 함께 일하시는 동료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방 임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함께 인천시민의 안전 책임자로서 보람을 갖고 근무합시다.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며 즐겁게 일하는 인천소방항공대, 화이팅!



긴급기동대와 소방항공대의
믿음직한 지원군,

운영지원팀

인터뷰 : 인천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운영지원팀 소방장 박성원

Q. 안녕하세요, 박성원 님.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9특수구조단 운영지원팀 소방장 박성원입니다. 저는 15년의 소방관 경력 중 13년을 현장 근무 후 올해로 2년째 내근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장업무만큼이나 힘든 내근업무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웃음). 저희 운영지원팀의 임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Q. 119특수구조단의 운영지원팀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부서인가요?

운영지원팀은 119특수구조단의 예산을 관리하며 대테러를 포함한 각종 특수재난 구조대책을 수립하고 대외적인 기관 합동훈련을 계획합니다. 또

한,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긴급기동대와 소방항공대를 옆과 뒤에서 지원하며 돕고 있어요.

Q. 119특수구조단의 운영지원팀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궁금합니다.

특구단의 사무나 예산 등의 작은 업무가 잘 마무리되었을 때도 큰 보람을 느끼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 일입니다. ‘강원도에서 하는 올림픽인데 왜 인천소방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거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천공항이 있는 이곳 인천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관문과 같아요. 만약 테러범이 테러를 일으킨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인천공항 같은 장소에서 국제적인 행사가 있는 시기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 특수구조단이 ‘대테러 소방 안전’ 계획을 추진한 것인데 상상보다 더 힘들었어요(웃음).

정말 많은 소방력이 동원됐고 준비 기간만 수개월 이어졌죠. 대회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끝나기까지 46일간 인천공항에서 약 백 명가량의 고정 관리 인원이 배치됐는데 다행히도 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 큰 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다들 정말 기뻐했어요.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른 것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것 같아 뿌듯했죠.

Q. 박성원 님이 생각하셨을 때, 119특수구조단 운영지원팀에서 일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모든 소방관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는 분들이면 됩니다.


Q. 운영지원팀에서 일하면 이런 게 좋다! 하시는 점 있나요?

운영지원팀에서 제일 좋은 점은 단장님과 팀장님

께서 저희 팀원들을 믿고 일을 맡겨주신단 점이에요.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셔서 한마음으로 즐겁게 일한다는 게 저희 팀의 자랑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함께 일하시는 동료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천소방 베테랑들이 모여있는 특수구조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든 일이 생겨도 지금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멋진 자세로 함께 노력해요. 또 전국에 계신 모든 소방 동료님들! 현장출동이 나 훈련 도중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근무하시길 두 손 모아 바랍니다. 



내 인생의 2막을 시작하며

Beginning the second stage of my life



글_남동소방서 만수119안전센터 소방사 김근소



약 3년 전만 해도 저는 육군의 중사였습니다. 남들은 멋지다고 치켜세우는 이 직업은 사실 저에게는 그렇게 뜻깊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그 일은 저와 맞지 않았고, 맞지 않는 업무를 매일 반복하려니 소모적인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거기다 군의 특성상 관심병사들의 끊이지 않는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는 저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보통 78kg 정도 몸무게가 나가던 제가, 한때는 90kg까지 살이 찐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퇴근 후 먹는 야식과 술을 스트레스에 대한 임시적 해결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처음 전역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간부와와 트러블과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순전히 제 탓이라 여겼습니다. 스스로를 무능하고 부족하다 나

무라며 미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어떻게든 업무를 이어나가려 노력했죠. 그렇게 하사 3년 차에는 중사 직급을 가슴에 달았지만, 성취감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또다시 전역을 생각하게 된 저는 이 무렵, 드디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더이상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긴 보단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일을 찾자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언젠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적 있던 ‘소방관’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인 4년을 채우고 전역했고, 그때부터는 직업으로서의 ‘소방관’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하셨지만 저는 꼭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렸으니, 전역 후 2개월 뒤 바로 학원에 등록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
 좀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현장을 뛰고 싶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자격증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썩 잘한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소방관이 되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절실했습니다.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폰을 정지시키고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걸었습니다. 학원이 끝나면 집으로 갔고, 자고 일어나면 학원에 갔습니다. 그렇게 규칙적인 수험 생활을 꾸준히 반복했더니 마침내 두 번째 시험에서 종합 5등으로 공채 소방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인생의 2막을 시작했습니다. 생계의 이유로 시작했던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어느샌가 사명감이 생겨났습니다. 소방 선배들로부터의 가르침을 가슴에 안고 배려와 동료애를 느끼며 전과는 다른 뜨거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현장을 뛰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슴 뛰게 만드는 ‘소방’으로 저를 입문시켜주신 아버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를 격려하며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선배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국소방자랑!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

National Firefighting Contest! The Fire Protection Science and Technology

*〈 대한민국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란? 〉

화재예방분야의 우수 인력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예방업무 종사자의 사기를 북돋고, 국민의 예방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회. 소방 지식과 관련한 OX 퀴즈 혹은 선택형 퀴즈가 출제되고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장이 지급된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소방안전분야에 관심 있는 이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글_인천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장원석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같은 팀 선배가 “내가 참가할 만한 소방 경연대회가 있으니 한번 살펴보자.” 권유했습니다. 그런 경연대회가 있는 지도 몰랐던 저는 그 선배 덕분에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날을 계기로 업무 외의 시간을 할애하여 틈틈이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예선을 진행했던 날, 헛갈리는 문제와 아예 모르는 문제가 몇 개 있어서 크게 기대하지 않고 그저 아는 만큼 푸는 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합격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고 함께 통과한 선배·동기와 생각지 못했던 기쁨을 나눴습니다. “2차 예선은 더 열심히 하자!” 얘기했던 저희는 얼마 후 2차와 3차 예선에 참가했습니다. 2, 3차도 1차와 같은 모바일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동료들과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준 덕분이었는지 최종 예선까지 무사히 치르고 마침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최종 예선을 통과한 460여 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대회장에 모여 본선 및 결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이 모이다 보니 다른 서에서 근무하는 동기 얼굴도 볼 수 있었고, 타 지역에 근무하는 학교 친구도 만나는 등 대회에 참가한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는 정부 분야(소방공무원 분야) 이외에도 전에 없었던 일반분야가 추가되어 소방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시민분들께서 소방 관련 문제를 풀고 맞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지식을 잘 아는 소방관들도 긴장하거나 헛갈려서 틀리는 문제인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소방안전에 대해 공부했으면 저렇게 잘 풀 수 있을까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막상 대회장에 와 열심히 문제를 푸는 시민분들과 열의에 찬 무대를 보니 본선 진출로 만족하고 있던 제게 어느새 본선 통과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한 선배에게 그 마음을 전했더니 그럴수록 냉정해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었고 덕분에 차분한



마음으로 마지막 대회에 임했습니다. 제 목표였던 본선 통과가 결정되는 순간 옆에 있던 선배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주었습니다.

서울 3명, 인천 1명, 대구 1명이 최종 결선에 올라가게 되었고 진행방식은 무대 앞으로 올라가 문제를 보고 먼저 버저를 누르는 사람이 맞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푸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 위에 서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결선은 총 10문제가 출제되었고 다들 막상막하의 실력을 뽐낸 결과 저는 3등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연대회에 참석했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인천 서부소방서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곧 진행되는 제3회 경연대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여 포상휴가까지 다녀올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웃음을 주는 신통방통 소방관 매지션!

박성욱의 마술 세상

A charming firefighter magician that will make you burst into laughter! Park Seong-uk's magical world

글_인천계양소방서 작전119안전센터 소방위 박성욱

사진_박성욱 제공, 김현미



나에게 인생행로를 바꿀 만한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첫째는 소방관으로서 나랏일을 하게 된 것이고, 둘째는 ‘마술사 소방관’ 정영권 반장님을 같은 소방서에서 만난 것이다. 1998년 10월 1일, 나는 소방관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첫 배명지는 서울 강남소방서. 공직자로서 나랏일을 한다는 것이 설레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시작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에는 2교대 방식이었는데 갑부로 배정을 받고서 며칠 후, 부소장님께서 저녁 즈음 나를 대기실로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 “너는 왜 소방관이 되었냐?” 하시는 것이다. 나는 주저 없이 “내가 잘하는 것은 운전뿐이고 이 재주로 국민을 도울 방법은 소방차를 운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마술을 시작한 계기도 소방관이 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영권 반장님을 만난 건 배명 첫날, 앞으로 근무할 파출소 대기실로 갔을 때였다. 나는 그분이 2년 전, <MBC 기인열전>을 통해 인상 깊게 본 출연자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 그분은 지금도 인터넷 검색을 하면 ‘소방관 마술사’로 나오는 정영권 님이셨다. 동경하던 이를 같은 직장에서 마주하니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팬이라고, 마술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고백했고, 반장님과 빠르게 가까워졌다. 이후에 무대 위 반장님의 유쾌한 마술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며 처음으로 ‘마술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반장님의 도움으로 초보자 수준이던 마술 지식을 차차 발전시킬 수 있었다. 물론 과정이 쉽진 않았다. 정영권 반장님은 답을 빨리 보여주는 방식으로 마술을 가르쳐주기보다 스스로 터득하기를 바라셨다. 본인이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마술의 연출, 쇼맨십 등을 연구하라는 것이다. 그분께 처음 받아본 교육 자료(비디오)는 프로마술사의 기술이었고 보는 동안은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이후에 그 자료만으로 혼자 연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마법사도 아니고... 사



람이 정말 저걸 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였다. 동전을 손안에 숨기는 ‘클레식 팜’이란 기술을 응용하여 손바닥 중앙에 동전을 붙이는 연습을 하는 데만 꼬박 6개월이 걸렸다. 피나는 연습 끝에 나름 노하우도 생겨 누군가에게 쉬운 방식으로 교육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지만, 기술만으론 마술이 완성되지 않았다. 대중을 사로잡는 무대 장악력은 기술과는 또 다른 영역으로, 술한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약 200회의 크고 작은 공연을 꾸미며 어느덧 20년 차가 된 나는 나만의 무대 연출방식과 재주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금은 마술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마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지인들을 조금씩 교육하고 있는데, 특히 마술을 좋아하

는 소방관들을 모아 ‘소방관 마술동호회’를 만들기도 했다. 어린이 동요대회 시작 행사, 불조심 포스터 개막행사, 어린이 소방대 행사, 심지어 2004년 어린이날에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소방국악대 음악에 맞춰 3천여 명과 서울시장님이 보는 앞에서 소방홍보 마술을 한 적도 있었다. 연말이 되면 보육원·양로원 등에 행사를 가고 인천 소방으로 전입한 후에도 관내 노인 요양원 등을 방문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마술을 보여주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는 이도 있었지만 천만의 말씀. 아이처럼 좋아해주는 어르신들을 보며 이런 게 ‘마술’이란 장르가 지금껏 유지된, 또 앞으로도 지속될 의미라 확신했다.

누군가에게는 장난스럽고 사기로 비치기도 하는 마술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살아있는 예술이고 손꼽아 기다린 즐거운 공연일 수도 있다. 마술을 나쁘게 이용하는 어른들만 없어진다면 내가 하는 마술은 어린이들의 동심을 살리고 반복되는 생활 속 스트레스를 유쾌하게 날려버리는 마법 같은 친목활동이라 말하고 싶다. 끝으로, 마술은 한번 보여준 상대방에게 같은 마술을 보여줄 수 없는 일회성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찾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수고스럽지만 노력 후에 얻는 값진 결과와 누군가의 웃음을 생각하면 나 역시도 기분 좋은 에너지가 솟아난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소방관 마술사로서 소방홍보에 전진하며 마술이란 달콤한 유혹에 살고자 한다.



Interview

인터뷰이 : 박성욱 소방위

인터뷰 : 김현미

Q. 안녕하세요,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천 계양소방서 작전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위 박성욱이라고 합니다. 화재 진압 업무 안에서도 특수차량, 큰 사다리차를 이용해 고층에 계신 요구조자를 구조하거나 높은 건물에 불이 났을 때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구조 차량 운전을 맡고 있습니다.

Q. 동경하던 ‘마술사 소방관’ 정영권 반장님을 같은 서에서 우연히 마주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처음엔 고백을 못 했어요. 얼마나 놀랐던지. 거기다 당시에 제가 신입이다 보니 함부로 이야기할 못하고 한참 후에야 제가 팬이라고, 마술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007가방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007가방 안에 있던 도구들로 무려 50가지가 넘는 마술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날의 충격은 어마어마했죠. 제가 처음으로 ‘마술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시작점이었어요.



Q. 그럼 그날부터 반장님께 특훈을 받으셨나요?

마술사들은 비밀을 알려주지 않아요. 단지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너는 이것과 저걸 찾아서 연습하고, 그 과정에서 네가 스스로 판단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장님께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어깨너머로 배운다고들 하죠. 손님께 보여주시는 마술을 저는 반복해서 보게 되고 어느 순간엔, ‘아, 이게 비밀이구나!’ 하고 깨우치죠. 마술을 두 번 이상 보여줄 수 없는 이유가, 비밀을 알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관찰과 연구 끝에 터득한 비밀을 조용히 안고 가서 집에서는 나만의 연습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만 찬찬히 익혔어요.

Q. 노인 요양원, 보육원 등에 방문해 마술 공연을 꾸준히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마술로 사회봉사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소방관은 공직자라서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 마술이라는 특수한 기술을 통해 제가 제2의 직업을 가질 순 없고,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결국은 처음 소방에 들어온 목적과 마술공연 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소방 일은 제가 제힘으로 다른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는 생각에 선택했었고, 마술도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시작했어요. 주로 요양원, 보육원에서 공연했어요. 특히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요양원으로 모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그리워하세요. 그래서 마술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저를 보신다기보단, ‘사람’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 나가서 무언갈 보여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그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손뼉 쳐주시고 웃어주시고. 그분들은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양원으로 더 자주 공연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Q. 소방관으로서 화재현장으로 나서며 ‘아, 이런 마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고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었지만, 지금 질문을 받고

떠올랐어요. 저는 아이들 생각처럼 불이 났을 때 “꺼져라 얍!” 하면 꺼지는, 그런 마술을 원하진 않아요. 그건 너무 황당하고(웃음). 물론 마법이고 마술이지만, 그건 너무 단순하고요. 저는 화재현장을 갔을 때 어디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마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이 나면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발견하기 힘들거든요. 또 요구조자가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디에 화점이 있는지. 화점을 찾아 물을 뿌리면 불을 빨리 진압할 수 있거든요. ‘끝!’ 하고. 근데 그걸 빠르게 찾는 것이 힘들어서 진압이 늦어져요. 이런 것들을 마술로서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요구조자, 위험요소, 화점의 위치. 이렇게 세 가지를 알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Q.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세요?

저는 이대로의 삶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제가 이대로 계속 몸이 건강해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것. 소방관으로서 소방 일을 하고, 또 저를 부르는 곳에 가서 마술공연 봉사를 할 수 있고 제가 가진 기술로 더 많은 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패딩 입고 출동,

“화염을 보는 순간 그냥 몸이 움직였습니다”

Firefighters mobilized wearing only winter outwears,
“My body just reacted automatically when I saw the flame.”

글 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오진수

유난히 춥고 바람이 매서웠던 2019년 1월이었습니다. 송현119안전센터 전·현직 직원 7명이 인사 이동 후 한 해를 넘기고서야 겨우 시간을 맞추어 저녁 식사를 하게 된 터였습니다. 서로 떨어져 지낸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낯익은 얼굴들을 해가 지나서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던지. 화재 현장에 출동 가서 같이 고생했던 일,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크고 작은 훈련들에 참여했던 일 등 많은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한창 이야기가 무르익었을 때, 저희는 올해 기해년 신년회를 이대로 마치기가 아쉬워 2차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멀지 않은 장소로 직원들과 함께 걸어가며 “아~~~, 오늘 되게 춥고 바람도 많이 부네.

이런 날 불이라도 나면 큰일 나겠어.” 하고 농담을 나눴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상상도 못하고 마냥 즐거운 마음으로 2차 장소에 도착했고 식당에 앉아 메뉴를 시키려고 보니 좀 전까지만 해도 옆에 있었던 정기영 주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근식 팀장님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인은 사라졌던 정기영 주임이었습니다. 맞은편 열쇠 집 상가에 불이 나서 본인이 끄고 있으니 와서 도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누구 하나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현장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이미 상가 지붕 쪽을 시꺼멓게 태운 무시무시한 화염은 바




람을 타고 뒤쪽으로 번져나가고 있었고, 자칫하면 독서실과 노래방이 있는 옆 건물로 넘어갈지도 모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화재 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방차가 도착하려면 멀었습니다. 그런 열악한 현장에서 정기영 주임이 옆 건물에서 가지고 온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줄줄이 현장에 도착한 저를 포함한 패딩 군단은 지붕 쪽에서 화염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보고 잘못하면 건물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뒷 건물까지 불이 번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화점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빠른 대처일 거란 판단에 옆 건물 2층에서 지붕 쪽으로 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화복 차림도 아니었지만 망설임 없이 옆 건물로 뛰어 올라간 저희는 2층의 붉은 소화전함에 서 소방 호스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곤 창문을 개방하려고 하는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저희가 보았던 유리창은 창문이 아닌, 개폐가 불가능한 통유리였던 겁니다.

당황한 것도 잠시, 때마침 복도에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가 보였고 얼른 집어 들어 세게 내리쳤지만 단단한 강화유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은 땀이 난 손을 쥐었다 폈다 하고서 다시 한 번 온 힘을 다해 내리쳤지만, 이번엔 야구방망이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작살난 방망이를 팽개친 저는 얼른 복도 끝의 빨간색 소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곧바로

멀리서 달려오며 유리창을 향해 붉은 소화기를 세차게 던졌고, 드디어 “쨍그랑!” 하고 커다란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통유리는 깨지고 소화기는 건물과 건물 사이 빈 공간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유리의 깨진 틈 사이로 소화전 관창을 밀어 넣어 지붕을 향해 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맨 위층부터 독서실, 당구장, PC방 등을 다니며 이용객들 100여 명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그 후 관할 펌프차와 물탱크차 등이 도착했고, 저희 ‘패딩 군단’은 그들과 합세하여 화재진압작전을 펼쳤습니다. 다행히 모두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인근 건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이날 화재는 큰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소방대원인 저희가 꺼내 들어 마치 특별한 장비처럼 보였던 ‘옥내소화전 내 소방도구’는 사실 화재가 발생하면 누구든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쉽고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옥내 소화전에 무엇이 들어있고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방 시설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방 시설의 사용법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재 초기 진화를 돕는 소화전 사용법에 대한 관심과 훈련으로 우리 시민분들 누구나 급박한 상황에서 소화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봅니다!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유쾌한 소방 식구!

Together for the better, happy firefighters!

사진_김현미 글_김지현

인터뷰이_인천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위 박광웅, 인천송도소
방서 예방안전과 예방총괄팀 소방위 김현희, 인천서부소방서 석남
119안전센터 소방장 김민규

핑퐁처럼 리듬감 있게 오가는 대화들이 재미있다. 서로에게 솔직한 만큼 짓궂지만 어딘가 모르게 끈끈함이 느껴지는 가을호 소식지 인터뷰 주인공들. 김현희 소방위를 필두로 남편 박광웅 소방위와 아이들, 남동생 김민규 소방장 내외와 조카까지 역대 '에너지충전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펜션을 찾았다. 굳이 '에너지 충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쾌함 가득한 이 소방식구들, 첫마디부터 범상치 않다. "저희 어제 거의 전세 내고 놀았어요!"



남편과는 소방커플, 동생과는 소방남매

김현희 소방위는 남편과 남동생이 모두 소방관이다. 김현희 소방위는 예방총괄팀에, 남편 박광용 소방위는 소방본부장 비서실에서, 동생 김민규 소방장은 119안전센터의 화재진압대원으로. 모두 소방 일을 하지만 각자 맡은 직무와 소속된서는 다르다. 세 사람 모두 같은 학원에서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었다는 소개에 ‘그 학원, 합격률이 대단하네요.’ 엄지를 들었더니 ‘지금은 없어졌다’며 소리 높여 웃는다.

박광용 2000년대 초반에 그 학원에서 집사람을 처음 봤어요. 아내랑 저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었는데, 제가 공부 열심히 하는 이 예쁜 아가씨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대시를 한 거죠(웃음). 이후에 둘 다 소방관이 됐고요.

김현희 신랑은 합격해서 먼저 소방관이었고, 저도 6개월 후에 소방관이 됐어요. 이 직업을 갖기 전에도 이미 만나던 사이였는데 제가 덜컥 시험에 합격해서 소방커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난 후엔 동생이 소방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김민규 누나랑 매형이 이미 소방서 다니는 동안 저는 군대 다녀와서 복학하고 졸업하고. 건축학과를 나와서 그쪽 일을 했었는데 저랑 안 맞더라고요. 고민 끝에 공무원 행정직 공부를 시작했는데, 학원에서 ‘소방’ 쪽 이야기들 듣고 흥미가 생겨서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어요. 안타깝게도 누나의 코칭은 전혀 없었습니다(웃음).

함께 소방관이라 좋은 점, 혹은 힘든 점 있으세요?

기다렸다는 듯, 안 좋은 점부터 속사포로 읊는 가족들. 틈이 없어(?) 비상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박광용 소방위의 농담에는 앞으로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주겠다 김현희 소방위의 센스 있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세 사람 모두 직장 내에서 행동을 더욱 조심하게 되는 부분을 언급했다. 본인이 실수하면 가족에게도 피해가 갈까 신경이 쓰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조심스럽고 겸손한 행동 덕이 있는지, ‘피해’는 커녕 오히려 서로의 ‘덕’을 보고 있단다.

김현희 저는 남편 덕, 동생 민규 덕을 참 많이 봤어요. 칭찬들이 들리잖아요. “아~ 광용이? 잘해!”, “민규 같은 애 두 명만 있으면 센터 다 잘 돌아가~” 하는 것들이요. 가족이다 보니 남편과 동생이 바르게 잘하면 저도 잘할 거라고 믿어주시니까. 그래서 저도 같이 덕을 보는 것 같아요. 제 칭찬은 들리고 있는진 모르겠지만(웃음).

박광용 나도 들었어. 송도소방서의 홍보담당자가 김현희인데, 그 직원도 참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김현희 그래요? 기분이 좋네요(웃음).

김민규 맞아요. 가족에 대한 좋은 평을 들으면 서로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바르게 하고 싶고.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김현희 소방위는 동생 김민규 소방장이 본인과 우애가 좋은 데다 매형 박광용 소방위와도 가까워 형제처럼 자주 뭉쳐 놀았던 때가 있었다며 회상했다. 이후에 김민규 소방장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바빠지자 예전만큼 자주 보지는 못했었다던 세 사람. ‘에너지충전소’를 계기로 오랜만에 한데 모인 건 하루 전날이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으며 해가 질 때까지 수영한 것, 불꽃놀이를 한 것, 온돌 체험기를 자랑하는 모습에 기분 좋은 나른함이 느껴진다.

김현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후로 이렇게 다 같이 놀러 온 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남편과 저는 1교대를 하지만 동생은 3교대를 하니가 달력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있어도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웃음). 그런데 이번에 너무 신나게 잘 놀았어요.



이렇게 잘 놀고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즐거웠어요.

박광용 저는 이 ‘에너지충전소’ 펜션 여행 되게 오고 싶었고,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인천119스토리 가을 호에 우리 가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추억이예요. 게다가 이걸 본부장님 비서실에도 비치를 해뒀요. 책이 나오면 우리 인천 소방 공무원, 시 분청, 유관기관 등 여러 곳에 배부되는데, 저같은 경우엔 만나는 분들께 책 한 권 드리면서 ‘우리 가족이야~’ 하면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사진도 멋있게 찍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뽕샷도 잘해주셔야 해요(웃음).

김민규 저는 누나 말대로 3교대 하는 직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근무시간에 출장 겸 여행을 온 상황이고, 와서 누나랑 매형이랑 간만에 술도 한잔 하니깐 오랜만에 너무 편하고 좋아요. 아들, 조카들이랑 수영도 같이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서로에게 평소 하고 싶었던 말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박광용 소방위는 ‘미안하다’고 표현했다. 말은 직무의 특성상 늘 시간에 쫓겨 가족들에게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데, 시종일관 유쾌하던 얼굴에 지난날의 아쉬움과 미안함이 고스란히 묻어 나던 그때, “아니야~.” 인터뷰 내내 주변을 맴돌

던 어린 딸 아이가 쿨하게 한마디 한다.

박광용 아빠가 더 잘해야겠다(웃음). 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다 보니 식사를 같이하기도 힘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제일 예쁜 시절에 그렇게 되다 보니 아빠로서 미안해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늘 고마운 마음인데, 앞으로 또 좀 바빠질 것 같아서(웃음). 고맙고, 미안해요. 그리고 처남은 요새 우리 집에 통 안 놀러 와. 재미없어졌어~.

김민규 같게요, 놀러 같게요(웃음). 지금 매형은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 골치 아프시겠지만, 그 좋은 성격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즐겼으면 좋겠어요. 누나도 힘든 일 없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테니까.

김현희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애긴데요, 친구한테 “우리 엄마, 아빠, 삼촌 다 소방관이야~!” 하고 자랑을 하고 다녔대요. 무척이라고(웃음). 어른의 시선으로 아이가 마냥 귀엽고 또 웃긴 거예요. 어쨌든 우리 셋 모두 아이들 눈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니까 지금껏 늘 해왔던 것처럼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가을철 산악사고, 기본수칙 지켜 다 함께 안전산행해요

Let's follow the basic rules for safe mountain climbing and to prevent mountain accidents in autumn

인포그래픽_김명진 통계 참고자료 출처_소방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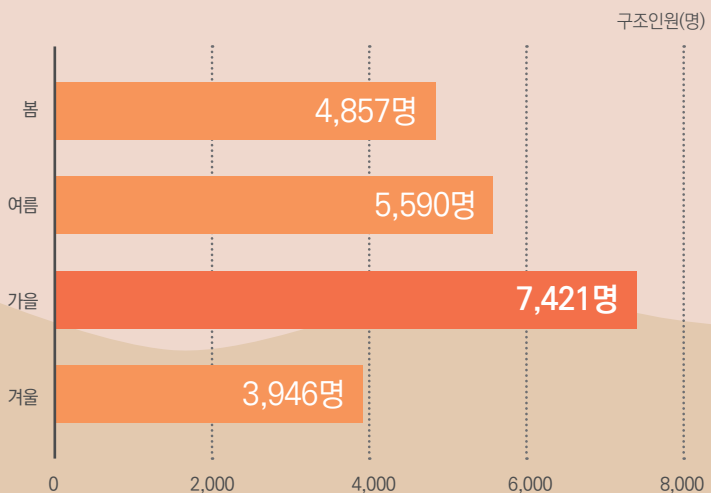
산악위치표지판과 간이 구조 구급함이란?



소방서에서는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산악위치표지판'과 '간이 구조·구급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산악위치표지판은 등산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조난이나 부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표지판 번호를 알려주면 구조대가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최단시간 내 구조가 가능하다. 간이 구조·구급함 안에는 누구나 간단한 상처 치료가 가능하도록 탄력붕대, 멸균거즈, 소독약 등이 비치되어 있다.

지난 3년간 계절별 산악사고 구조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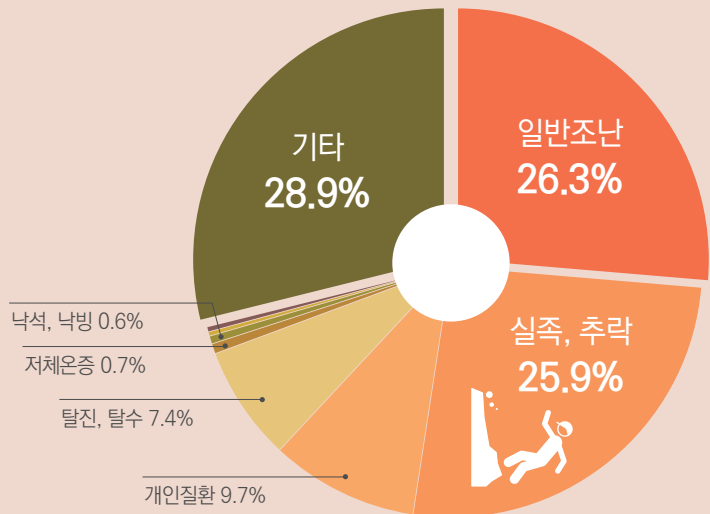
→ 119구조대는 최근 3년간 (2016~2018) 산악사고로 총 3만 6,196건을 출동, 그중 가을철에만 7,421명(34%)을 구조, 사고가 가장 잦음



2018년도 산악사고 사고유형

일반조난과 실족·추락이 대부분

*가을철 등산로엔 낙엽이 쌓여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등산에 알맞은 운동화를 신고 지정된 코스를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첫째, 날씨 정보는 산행 전 미리 체크!



둘째, 체온 유지에 필요한 옷, 비상식량(초콜릿, 스낵바, 이온음료 등)을 준비합니다.



셋째, 산에 오르기 전, 준비운동은 필수입니다.



넷째, 가능한 나 홀로 산행을 자제하고 두 명 이상 동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째,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지 마세요. 팻말이나 밧줄로 출입을 통제해 둔 지역을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 28조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섯째, 음주와 흡연은 절대 금지! 음주 후 산행은 실족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See&draw 어린이 소방안전도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How was the illustrated fire safety book for children “See & Draw” made?

글_인천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총괄팀 소방교 이광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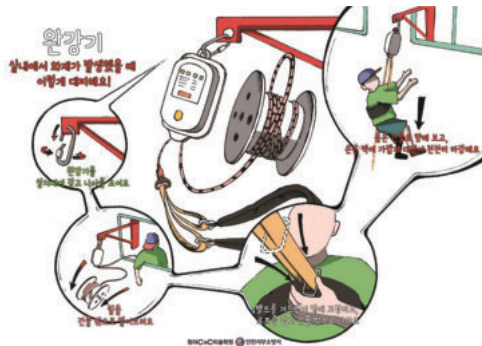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서부소방서 예방총괄팀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교 이광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여름, 『See&Draw 소방안전도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작한 『세상에 하나뿐인 소방안전 동화책 컬러링북』에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해주셨고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스토리텔링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용기를 얻어 2탄까지 만들었죠.

도감이란 정보전달 목적하에 그림이나 사진을 모아 실물 대신 볼 수 있도록 엮은 책입니다. 이번

『소방안전도감』은 호기심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소방서와 소방관에 대해 가진 궁금증을 쉽고 재미있게 해결해줍니다.


아이디어와 시나리오가 완성된 후, 이번에도 청라 C&C 미술학원 김현정 원장님과 학생들이 삽화와 디자인 작업에 함께했습니다. 기획했던 내용보다 훨씬 보기 좋고 멋지게 그려주셔서 감탄하고 있었는데 ‘고되지만 뜻깊고 보람된 일에 또 한 번 불러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저 또한 이 도서의 홍보와 교육을 위한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책은 『See & Draw』라는 제목 그대로, 보고 그리는 활동북입니다. 밑그림을 통해 색칠하고, 오려 붙여 만든 소방차와 소방장비, 안전수칙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와 활용예시를 적어 놓아 도감의 역할을 충족시킵니다. 체험 위주지만 교육자료로서의 기능도 놓치지 않기 위해 세심히 준비했고 만드는 과정에서 저도 다시 한 번 소방에 대해 공부하고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지겹고 따분한 교육이 아닌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방 정보와 안전수칙을 터득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했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 ‘세 살 안전수칙

여든 간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안전수습관 가지기에 앞장서는 학습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거나 도전할 때 주변 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큰 힘이 된단 걸 느꼈습니다. 옆에서 칭찬해주시고 용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새로운 도전에 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값진 도움 주신 서부소방서장님, 예방안전과장님, 예방총괄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 3탄, 4탄, 식상해지지 않고 더욱 재미있고 신선한 소방안전 학습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드무비>를 보고 대원분들께 물어요 ✓

After watching the movie “Sad Movie”, we
asked some questions to the firefighters

영화 <새드무비>속 배우 정우성은 서른 살의 소방관 진우로 분한다. 그는 연인인 수정(배우 임수정)에게 프로포즈 할 날을 고대하며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수정은 늘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에 뛰어드는 진우의 소방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지금부터 소방관인 진우의 일상을 잘 보여준 영화 <새드무비>를 보고 일반 시민이 소방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실제 소방대원들에게 물어보자.

글_김지현

사진_(주)아이필름코퍼레이션

*정성껏 답변 주신 소방대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송도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이민상 님, 송도소방서 미래119안전센터 소방교 이윤은 님, 송도소방서 미래119안전센터 소방사 오현우 님, 계양소방서 효성119안전센터 소방경 류재은 님, 미추홀소방서 관교119안전센터 소방사 박흥배 님, 미추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임광남 님, 미추홀소방서 송의119안전센터 소방장 신범식 님, 미추홀소방서 신기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수종 님, 미추홀소방서 용현119안전센터 소방교 김창호 님, 미추홀소방서 주안119안전센터 소방위 이범림 님



소방차 세차를 소방대원들이 직접?

소방관 진우와 119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이 소방호스와 밀대 등을 이용해 붉은 구급차들을 세차하고 있다. 분위기는 아주 즐겁다.



영화에서처럼 대원분들이 소방 호스를 이용해
직접 구급 차량을 세차하시나요?

네, 실제로 화재현장에 다녀온 소방차량을 대원들이 세차합니다. 차량이 워낙 커 일반 세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소방서 차고 앞에서 세차하고 있답니다. 또, 고압세척기가 없는 소방서는 소방 호스를 이용해 세차하지만 물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아끼려고 해요.

비가 소방관에게 도움을 줄까?

수정은 매일 비가 오길 기도한다. 늘 구조를 위해 망설임 없이 불길 속을 향하는 남자친구 진우가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오늘도 출동을 다녀온 진우는 중상을 입은 구조자의 병실 앞에 기운 없이 앉아있다. 수정은 그에게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이 일을 그만두자’고 부탁한다.



비가 오는 날은 화재신고 횟수가 줄어들거나 실제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되나요?

시민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비로 인해 시야가 가리는 등 현장활동이 더 불편합니다. 물기로 인한 합선으로 전기화재, 화재경보기 오작동 등으로 출동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단, 임야 화재의 경우는 큰비가 내리면 진화에 도움이 됩니다.



소방대원으로서 일하다 보면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해 가슴 깊이 슬픔이 새겨질 때도 있을 거라 염려됩니다. 실제로 많은 대원분들이 PTSD증상을 겪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PTSD를 극복하 시나요?

소방관은 다른 직종에 비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억지로 눌러놓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 합니다. 퍼즐 맞추기라든지, 운동을 하며 무거운 기억들을 제 속에서 빼내곤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출동 벨이 울리면 제가 필요한 그 곳을 향해 힘차게 출동하기 때문입니다.

큰 목소리만으로 요구조자를 수색할까?

구조대원으로 투입된 진우가 방화복을 입은 채 불길 속을 헤매며 요구조자를 수색한다. “누구 없어요? 구조대입니다!” 큰 목소리가 찌렁찌렁하게 울리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다.



화재현장에서 요구조자를 수색할 때, 영화에서는 큰 목소리로 구조대가 왔음을 알립니다. 육성으로 신호하는 방법 말고도 다른 수색 방식이 있나요?

화재현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육성으로 요구조자를 찾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서치라이트로 이곳저곳을 비춰 요구조자에게 신호를 보내거나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 만능도끼 등으로 지물을 내리쳐 소리를 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명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만나면 양보해주세요~!

When you meet us, please give way to us~!

글_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김소연
인터뷰이_안지섭, 지현우, 김건형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인천 소방 산하 각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참여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동승체험을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방관과 함께 소방차에 탑승하여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한다. 보통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 신청자들이 대부분인데 지난 5월 15일 중부소방서에 건장한 청년 3명이 동승체험을 하겠다고 방문했다. 누구보다 설레고 긴장된 표정으로 소방서를 방문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Q.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에 사는 안지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합병원과 기업체에서 간호사로 2년 넘게 근무했었고 현재는 인천소방공무원 구급분야에 지원하여 최종면접을 앞둔 응시자입니다.

.....

Q. 함께 체험에 나선 일행들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행들은 같이 운동을 하며 알게 된 동생들입니다



다. 마침 저희가 면접 스테디를 함께 하고 있고, 서로 같은 꿈을 향해 준비하고 있어서 미리 체험해본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제안했습니다.

.....

Q.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참여 신청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체력시험 이후 면접 준비를 위해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방차견학, 소방차동승, 119 안전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면접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참여 가능한 체험이 있는지 확인했고, 마침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참여 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위급한 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대원이 되고 싶은 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

Q. 체험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먼저 안내해주시는 분께서 출동할 차들이 준비되는 동안 어떤 종류의 차들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탈 차들을 배정



받았습니다. 저는 구급대원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에 구급차를 타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차량이 없어 가장 많이 출동한다는 펌프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구급차는 아니었지만 처음 타보는 소방차였기 때문에 가슴이 설렜고 차 안의 소방장비들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체험하는 동안 시민들의 도움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가 아닌 훈련 상황이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체험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

Q. 소방관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선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소방차 길 터주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후배 대하듯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챙겨주신 중부소방서 소방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부소방서 소방관님들의 모범적이고 전문적인 모습을 본받아 저도 제 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을 위해 밤낮없이 안전을 사수하시는 소방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체험에 나섰던 열정가득한 청춘들과의 인터뷰를 마치며 묻습니다. 여러분, ‘소방차 길 터주기 협조’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도로 위 운전 중 소방차가 지날 때 소방차 길 터주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소방차 길 터주기』 현명한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소방차가 지나가면 교차로를 피하여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일시정지 합니다.
- 일반도로에서는 좌우로 비켜 가운데에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 횡단보도의 보행자도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멈춰야 합니다.
- 소방 관련 시설 주변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가 접근하면 양보해주세요~!

튼튼한
지원군단,

나는 시민 의용 소방대원입니다

Reliable support corps, and I am a volunteer fireman

*< 의용소방대란?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일선의 소방조직으로 소방관이 아닌 일반인 중 희망하는 자로 구성된다. 화재 등 재난상황 시 소집되어 복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필요한 경우 상근하기도 한다.

글_행사안전전문 의용소방대장 한경순



“

처음 의용소방대에 관심을 갖게 된 때는 2005년 8월이었다. 한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제복을 입은 이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본 것이 계기였다. 그들을 ‘의용소방대원’이라 칭한다는 것, ‘의용소방대’라는 조직이 있다는 것 모두 그날 처음 안 셈이다.

”

의용소방대원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일을 하고, 지원하는 방법도 모르던 나는 집 앞 송도 119 안전센터(지금의 신송119안전센터)에 방문했다. 궁금했고, 할 수 있다면 나도 그 일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침 센터에 게재된 모집공고를 찾을 수 있었고 준비 끝에 2010년 10월 발대식을 기준으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일을 하며

회고할만한 에피소드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내가 의용소방대원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몇 가지 특별한 기억들이 있다.


첫 번째론 경기 전후의 장내 미화를 담당하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다. 2013년에는 전국체전을 위해 인천대 축구장을, 2014년에는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위해 역도경기장 장내를 정리·정돈하고 환경 정화활동을 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 더군다나 이 일을 계기로 인천시장 표창도 받게 되었고 더욱 열심히 봉사하리라 다짐하게 되었다.

머릿속에 남은 또 다른 특별한 추억은 2015년 연수구에서의 일이다. 연수구에 주거하는 독거노인, 혹은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가정에 도배 및 장판교체와 집안 대청소를 해준 적이 있었다. 내가 방문하게 된 곳은 바퀴벌레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가정집이었다. 발 들여놓기도 꺼려지는 곳이었지만 그렇기에 더욱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 생각하며 팔다리를 걷어붙였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6월의 더운 날씨에 땀범벅이 되어 온몸에 옷이 들러붙고 지쳐있을 때였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가 하고 후 돌아와 자기 방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라며 다시 뛰어나왔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지쳤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려는가 싶더니 어느새 내 눈엔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화재현장에도 많이 나섰다. 소방대원들을 지원해 화재진압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일 중,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긴 시간 이어졌던 소래포구 화재현장에 대한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소방관 200여 명과 차량 50여 대가 화재진압을 했지만 활활 타오르는 화마를 금세 막을 수는 없었다. 우리 의용소방대는 장시간 불과 맞서야 하는 소방대원들이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물과 간식을 전달했고, 불이 완전히 꺼뜨려지는 마지막까지 그들이 안전하도록 기도했다. 또한, 이 같은 무서운 화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불조심 또 불조심!” 하고 되새겼다.

나는 여전히 연수구노인복지관, 송도노인복지관, 지역요양원 등을 찾아다니며 어르신 돌보기 및 급식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어르신들을 대하며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봉사자들에게 짬짬이 소화기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의 소방지식을 알려주기도 한다. 늘 보람을 느끼지만, 어르신들께서 식사를 마치고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며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 나의 행복감은 최고치에 이르는 한다.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면 어디든 달려갈 것이며 송도소방서 행사안전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해 본다. 



2019 하반기 소방 행사 안내

Information of Fire Fighting Events in The Second Half of 2019

제13회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 11월

일 정	2019. 11. 21.(목) 13:30 ~ 17:00
장 소	대전광역시청 3층 대강당
참 가	18개팀 300여명(각 시·도 예선결과 1개팀 출전)
경연내용	직접 제작한 안전UCC영상을 무대에서 재연 ※초.중.고등학생이 팀(10명 이내)을 구성하여 7분 이내 직접발표
주 최	소방청 / 한국소방안전원
후 원	교육부, EBS,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시설협회
총 상 금	760만원



어린이 불조심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 11월

공모기간	2019. 11. 1.(금) ~ 2019. 11. 29.(금) (29일간)
공모대상	인천광역시 초등학생
분 야	화재예방 관련 손 그림 포스터
접수방법	작품(원본)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수상발표	예선 → 2019. 12. 6.(금)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 게시 본선 → 2019. 12. 18.(수) 소방청 홈페이지 게시





칭찬합시다

Let's Compliment

1 “장기119 안전센터 김상훈, 이종원, 황순호 대원님 감사합니다^^”

작성자 : 주진영

소방관 : 계양소방서 장기119안전센터 소방장 김상훈, 소방장 이종원, 소방사 황순호

안녕하세요~ ^^. 지난주 화요일 경인 아라뱃길에서 자전거 사고로 이마가 찢어지고 출혈이 많이 난 저희 초등 4학년 아들에게 상처 봉합 전 처치를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병원까지 든든하게 보살펴 주신 덕분에 저와 아들은 몸도 마음도 안심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봉합 치료받느라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글이라도 남깁니다. 팍팍하고 마음에 여유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소방 대원님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커지고, 저희 아들도 바른 인성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 같아요. 멋진 장기119 안전센터 대원님들!!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드셔서 늘 건강하시고 예쁜 마음 그대로 변하지 않길 바라요. 앞으로도 계속 파이팅입니다. ^^

2 “강화 구급대원 김원진, 이주현 대원님 감사합니다.”

작성자 : 김미순

소방관 : 강화소방서 길상119안전센터 소방교 김원진, 소방사 이주현

8월 17일, 어머님을 모시고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근처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1년에 한 번 모이는 가족 여행에 캐나다에서 온 동생 가족도 참석하여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후 5시경 수영장에서 노시던 어머님께서 주저앉으며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의 위치도 모르는데 빠르게 부어오르는 어머님의 얼굴을 보면서 겁이 나 119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가까운 곳에 119구급차가 없다는 말과 함께 일단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에 맘 졸이고 있었는데, 다행히 가까운 곳에 계시던 김원진, 이주현 대원님께서 어머님을 이송해 주셨습니다. 구불구불한 강화도의 길은 다친 어머님께는 또 다른 통증이 되었고, 그 바람에 어머님의 짜증 섞인 말과 질문이 이어졌지만 두 분은 단 한 번의 삶은 내색도 없이 저희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고로 강화도의 기억이 나쁘게 남을 수 있었으나 119구급센터 대원분들 덕에 즐겁게 여행을 마무리하고 오늘 일상생활에 복귀하였습니다. 김원진, 이주현 대원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미추홀소방서 구급대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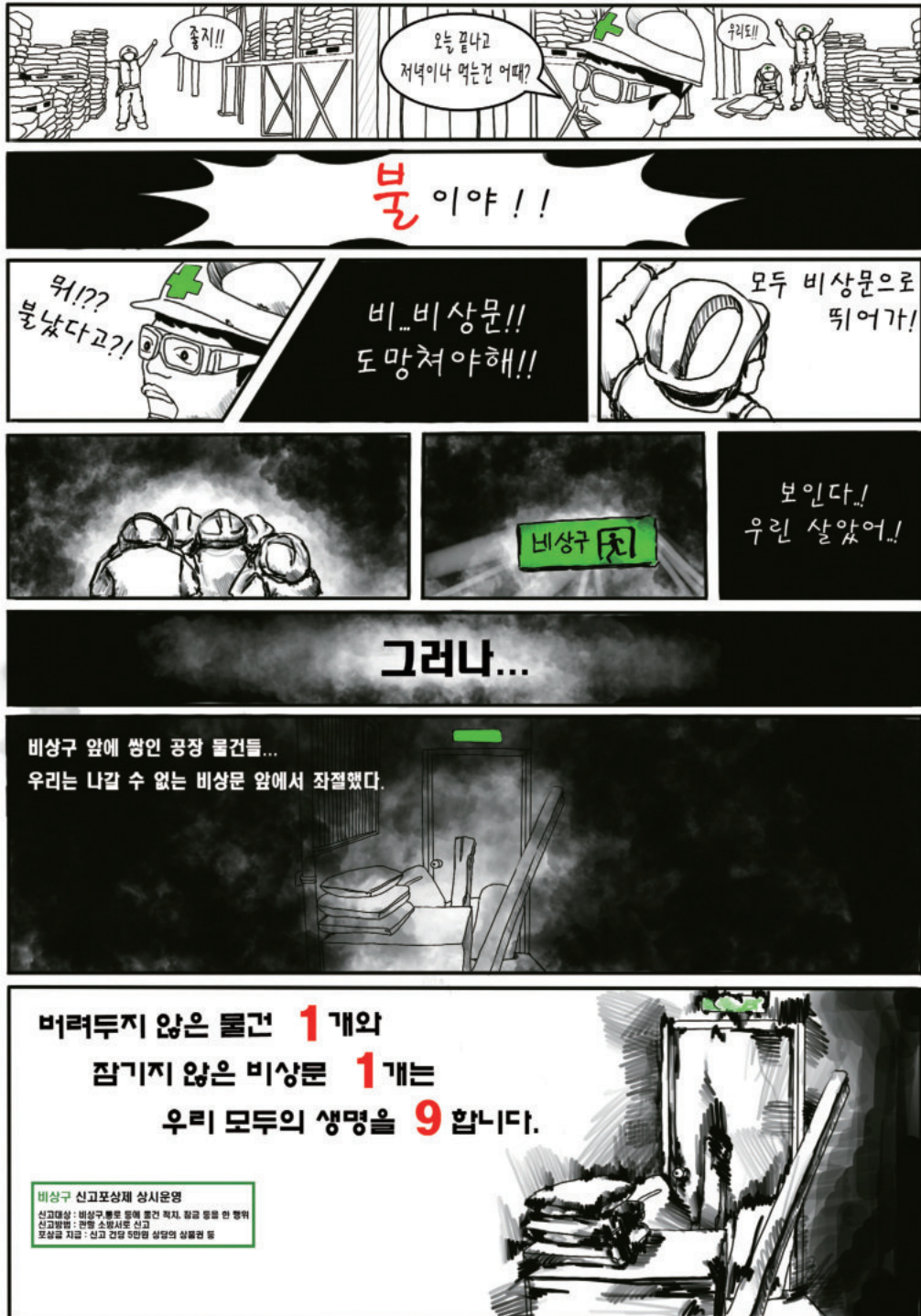
작성자 : 송찬

소방관 : 미추홀소방서 신기119안전센터 이항만, 소방사 이미경, 소방사 윤병준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화물차 기사입니다. 얼마 전, 이틀간 지방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쓰러져 계셔서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잠도 못 잔 상태이고 너무 놀라서 경황없이 허둥거렸는데 신속히 출동해서 아버지를 병원까지 이송해주신 미추홀 소방서 구급대 이항만, 이미경, 윤병준 대원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더운 날씨에 시원한 음료수라도 드리려 했지만 사양하셔서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도로에서 긴급 차에 협조를 잘해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하게 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상문은 생명의 문

Emergency doors are the doors to life



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굵혀도 보상금이 0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작년에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중 34%는 ‘도로정체 및 불법주차로 인한 도로협소’로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소방기본법 개정 후 소방활동 방해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해졌음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불법주정차 문제! 이에 인천소방본부는 ‘소방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시행’을 알리기 위해 굵혀도 보상금이 0원인 특별한 ‘생명복권’을 만들었어요. 지난 8월, 불법주정차 차량들에게 생명복권을 배부하고 인근 상인분들께 캠페인을 설명드리는 등 ‘생명복권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누군가에게겐 더없이 소중한 골든타임! 올바른 주차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인천소방본부 공식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119incheon>



미추홀119스토리의 모든 내용은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와 전자책 유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웹진 인천소방본부홈페이지 <http://new119.incheon.go.kr>
- 전자책(ebook) 리디북스, 교보문고, 알라딘, 구글 플레이북스, yes24, 반디앤루니스

숨의 능선

바다와 산이 부딪혀
깊이 간 시간

깼깼한 거울 속에 비춰진
바닥에 주저앉아
굳어만 가는 숨의 능선

부드럽게 드러누운 길 위의 파도처럼
바다를 잉태하던 심장도
한 줄로 깊이 간 시간

쉬어 갈 때.

저 능선 너머 밀려오는 땀내 흘내음
디딜만한 바람 한주먹

거역-하니 뱉어내는 아슬한 소리
뒤집힌 듯 섞인 이 공간은

차차 조금의 꿈틀거림조차 없는
한 뼘 길 따라
날카로운 능선을 향해 조용히 치달는데

아직 바다가 죽지 않는 것은
잔내 나는 물음이 헤엄치기 때문

굳어가는 능선 위로
바람이 불고
다시 파도가 치면

깊이 간 시간도
쉬어 갈 때

